

(붙임)

사 진 자 료



< 국가무형유산 ‘옥장’ 보유자로 인정 예고된 김영희(金泳熙) 씨 >



< 투각 작업 중인 김영희 씨 >



< 흙내기 작업 중인 김영희 씨 >